

《主題論文》

韓國圖書館의 過去와 現在

韓國圖書館協會

會長 姜 周 鎭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관 국제회의에서 발표될
주제 논문을 우선 게재하여 소개합니다.

序 言

韓國을 政治 經濟的으로 흔히 말하기를 未開發國家라고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개발도상의 國家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말 한다면 韓國의 圖書館界도 미개발상태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개발도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圖書館의 數와 藏書量, 그리고 活用度의 低調라는 뜻에서는 未開發狀態에 있고 또 圖書館의 發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點에서는 開發途上에 처해져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韓國의 政治 經濟 社會制度가 옛날에 未開發다는 뜻은 아닐것이요 또 韓國의 圖書館이 옛날에 없었다는 뜻은 아니며 또한 옛날에 韓國의 文化나 記錄이 貧弱했다는 뜻은 아니다 政治 經濟的으로 韓國이 뒤졌다는 것은 다만 近代에 들어와서 自然權思想이 늦게 들어왔다는 것이고 또 工業化가 뒤졌다는 것 뿐이며 圖書館界를 말하더라도 다만 大衆化가 뒤졌다는 것 뿐일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 나라 圖書館의 過去와 現在를 살펴 보고 現在의 問題點과 앞으로의 展望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저 한다.

過 去

韓國은 文化的으로 세가지 點에서 惠澤을 입어 왔다. 其一은 韓國의 종이 製造法이 일찍이 發達했을 뿐만 아니라 韓國의 종이 가 오랫동안 保存될 수 있는 紙質이어서 몇 百年 前의 圖書가 그대로 保存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其二는 鑄字活字를 만드는 技術이 세계에서 第一 먼저 發達하였으므로 圖書의 大量生産이 可能하여 印刷術이 일찍이 發達하였다는 것이다 其三은 著者が 많았다는 것이다. 1968년에 國會圖書館에서 發刊된 韓國古書綜合目錄에 依하면 西紀 500年頃부터 1900年頃까지 1,400年 동안에 대체로 1萬 2千名 가량 著書를 남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세가지 點으로 해서 옛날부터 韓國은 圖書文化가 裕豐한 나라 였다. 그뿐만 아니라 以上과 같은 三大要件 以外에도 韓國人은 傳統的으로 종지와 書籍을 尊重하는 思想이 있어서 많은 記錄圖書와 文藝書籍이 多量으로 그리고 여러곳에서 保存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韓國 사

람들은 學者들을 優待했고 學問을 尊崇했기 때문에 자연 書籍도 所重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名門이라고 하면 學者들이 많아야 했고 또 이 學者들은 많은 書籍을 간직 하였다. 이와 같은 風習으로 해서 지금에 와서도 萬餘卷 以上 藏書를 가지고 있는 學者들이 相當한 數에 達할 것이다. 따라서 圖書 保存은 이러한 學者들을 通해서 비교적 잘되어 왔던 것이다. 지금 서울의 古本店의 古典的 書籍은 모두 이러한 옛 학자들의 후손들이 팔아 넘기는 것이 많음으로 서적의 蒐集 資源의 유일한 補給處가 이러한 옛 학자의 개인 장서일 것이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마을 마다 書堂이라는 初等教育機關이 있었고 各 行政區域 單位마다 學校라는 中等教育機關이 있어서 書籍을 保存하고 읽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事實로 해서 韓國의 圖書文化財가 비교적 보존되어 왔다는 點에서 韓國의 古典的 圖書館 制度는 큰 効力を 거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國家 貴重文獻 및 圖書保存 機關으로서 數個의 山간벽지에 史庫(摩尼山, 赤裳山, 太白山, 五臺山 等)를 설치하여 天變災火와 전란을 당하더라도 圖書를 保存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이런 面으로 보아 韓國의 圖書館 制度는 크게 發達된 部門도 없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圖書館學에 관해서도 部分的으로 크게 發達한 點도 없지 않다. 이를테면 1,500年代에 이미 670餘種의 「海東文獻錄」이란 도서해제가 조사 집필되었고 또 文物制度에 관한 참고도서(文獻備考)가 1770년에 王命으로 편찬 간행되었으니 이것이 모두 現代의 圖書館學 所産의 一部門임에 틀림 없는 일이다. 圖書館學과 圖書館 制度는 비록 現代의 意味에서 본다면 幼稚한 단계라 할지라도 어떤 部門에 따라서는 크게 發達된 어떤 點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이야기 한바 있는 史庫는 高麗末 李朝에 걸쳐 歷史의 實錄을 保管하던 곳이다. 이 史庫 制度는 國內의 亂이나 外國의 侵入이 있어도 禍를 입지 않기 위한 하나의 國家的 圖書 保存策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史庫들은 임진왜란 등으로 인하여 많은 번침이 있었으나 李朝末까지 존속된 것으로서는 「五臺山 史庫」「太白山 史庫」「鼎尼山 史庫」「赤裳山 史庫」의 四個 史庫이다. 그리고 또한 重要的한 것은

李朝時代에 「奎章閣」이란 훌륭한 왕실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물론 現代의인 해석의 圖書館은 아니었다. 李朝 第22代王 正祖(1776—1800)가 「奎章閣」이란 王室 圖書館을 설치한 目的은 歷代王의 詩文 親筆 書畫 願命 遺教 辨譜 文集 등 各種 圖書의 수집 보존과 아울러 이상적인 政治를 具現하기 위한 學術的인 뒷받침을 마련하여 주자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장 자료의 利用에 對하여서는 엄격한 圖書 출납제도를 마련하여 文臣들이 必要한 資料를 闕內에서만 수시로 열람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奎藏閣 圖書는 1929년에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에 이관되어 현재 同 圖書館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학자들에게 공개 되고 있다. 이 奎藏閣 圖書는 韓國本이 19,708種 73,421冊이고 中國本이 5,913種 65,568冊으로 과거의 韓國을 研究하는데 貴重한 문헌임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東洋 最大의 古典의 藏書이다.

近代의 圖書館의 機運은 大韓帝國 때 개화사상과 西歐文明이 도입됨으로서부터 始作되었다.

即 1900年代에는 近代의 圖書館 設置 運動이 活潑히 전개 되었으니 有志들에 의하여 서울에 韓國圖書館과 평양에 私設 圖書館을 설치하여 一般의 열람에 이바지 하였다.

이 두 圖書館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근대적인 圖書館의 始初가 되는바 實로 그 意義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01년에 釜山市立圖書館이 1919년에 鍾路圖書館(當時 京城圖書館)과 大邱市立圖書館이 1923년에 國立圖書館(當時 朝鮮總督府圖書館) 등의 創設을 보게 되었다. 特히 鍾路圖書館은 現代의 圖書館의 必要性을 인정하고 李範昇 氏가 個人 私財를 가지고 1919年 9月에 創設하였고 其後 一般에게 많은 봉사 활동을 하여 왔으나 재정난으로 인하여 不得已 1926년에 서울市(當時 京城府)로 讓渡하였던 것이다. 以上은 우리 나라 圖書館이 公衆을 위하여 봉사하는 近代의 圖書館으로서 발달되기까지의 過去에 對하여 살펴 본 것이다.

現 在

公共圖書館

현재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은 다른 여러 種別 圖書館에 比하여 가장 發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理由로서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뚜렷한 것으로는 國民全體와 社會全體가 圖書館에 對한 인식이 지극히 稀薄하다는 點이 第一 큰 理由가 될 것이고 둘째로는 6·25의 動亂으로 인하여 3年有餘의 戰爭을 치러야 하였던 것이 또한 큰 理由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發展할 수 없는 객觀적 조건을 지니고 있어 發展을 하지 못하고 있는 公共圖書館界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1957年 以後 새로운 圖書館學과 圖書館 教育이 도입되

고 教育이 實施됨에 따라 現代의 圖書館이 每年 몇 個씩 新設되어 各各地域社會에 奉仕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여기에 公共圖書館의 過去와 現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內容으로 區分하여 비교코자 한다. 첫째 公共圖書館 數에 관해서 말하기를 한다. 1955년도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 數는 불과 12個館이었다. 當時 人口 數를 보면 約 2,150萬名으로서 公共圖書館 하나에 約 179萬名의 人口가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餘年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公共圖書館이 59個館으로 增設되었으며 또한 其間 47個館이 增加 되었으므로 公共圖書館 數는 4.92倍로 늘었고 이는 年平均 2.6個館이 新設되었다는 말이 되겠다. 그리고 現在의 人口數는 約 2,900萬名이므로 公共圖書館 하나에 約 47萬名의 人口가 매달려 있는 셈이 된다. 두번째로는 열람좌석 수에 관해서 살펴 보면, 1955年度 全 公共圖書館의 좌석 수는 1,784席이었으므로 이는 人口 約 119萬名에 한 席 꼴이었다. 그러나 現在의 全 公共圖書館의 座席數는 12,443席으로 되었으므로 其間 6.74倍가 증가 되었으며 人口 約 23萬名에 한 席의 차체가 되는 셈이다. (年平均 800餘席이 增加되었다) 끝으로 세번째는 藏書 數에 關해서 살펴 보면, 1955年 全 公共圖書館에 소장된 총 藏書數는 476,844冊으로서 人口 約 45,000名에 한冊 꼴이었다. 그러나 現在의 統計에 依하면 總 藏書數가 864,402冊이므로 其間 1.81倍가 增加되었으며 人口 約 33,000名에 한冊 꼴이 되는 것인데 이는 年平均 約 33,000冊이라는 아주 작은 數의 冊이 增加되었다는 結論인 것이다. 以上 살펴 본 바와 같이 10餘年間의 過去와 現在의 모습을 比較해 보았다 이룩한 表로서 본다면 다음과 같다.

圖 書 館 數

館種	年度		增 加	備 考
	1955年	1968年		
公共圖書館	12	59	4.92倍	學校圖書館統計는 1962年부터 시작하였으므로 計數에는 포함치 아니함
大學圖書館	43	125	2.91倍	
特殊圖書館	15 (1962)	111	7.40倍	
學校圖書館	149	3,322	22.30倍	
計	70	3,617		

閱覽座席數

館種	年度		增 加	備 考
	1955年	1968年		
公共圖書館	1,784	12,443	6.74倍	學校圖書館數는 미 포함
大學圖書館	4,194	37,932	9.04倍	
特殊圖書館	526 (1962)	2,772	5.27倍	
學校圖書館	18,065	176,242	9.76倍	
計	6,504	229,389		

藏 書 數

年度 館種	1955年	1968年	增 加	備 考
公共圖書館	476,844	864,402	1.81倍	學校圖書館數 는 포함
大學圖書館	1,297,034	4,693,353	3.62倍	
特殊圖書館	187,372 (1962)	1,113,857	5.94倍	
學校圖書館 計	403,528	5,991,066	14.85倍	

大學圖書館

우리 나라 圖書館들을 館種別로 볼 때 大學圖書館이 그 內容이나 외모에 있어서 比較的 많은 發展을 보이고 있으며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圖書館들 中에서 一方으로 發展한 大學圖書館이 그렇게 發展하게 된 原因으로서 大學이 갖추어야 할 여러 施設에 對하여 文教部는 1955年 8月4日 大學設置基準令으로 그 基準을 規定하고 이 基準에 依하여 大學實態調査를 每年 實施하였으므로 大學 當局은 이 基準에 맞추기 위하여 圖書館을 擴充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急速度로 擴充되었다.

同 基準令에서 大學圖書館에 관계되는 條文을 찾아 본다면 「大學에는 學生 1名에 對하여 30冊 以上의 圖書를 備置하되 1學科當 5,000冊 以上이 되어야 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는바 이 條文이 大學圖書館의 施設基準에 關한 唯一한 法的인 規定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基準令에 依하여 大學圖書館의 藏書는 增加하게 되었고 한편 學生 數가 增加하여 그에 따라 各 大學은 圖書館을 확장하게 되었다. 특히 1957年 梨花女子大學校가 圖書館을 건축한 이후 中央大學校, 成均館大學校, 延世大學校, 慶熙大學校 等 여러 大學은 圖書館을 건축 또는 확장하게 되어 오늘 날 大學圖書館은 다른 館種에 比하여 모든 面에서 比약적으로 發展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다음에 大學圖書館에 關하여 몇 가지 過去와 現在를 比較코자 한다.

大學圖書館의 館數는 大學의 數와 同一한 것이므로 數交를 論할 수 없으나 1955년에 43個館이 現在 125個館으로 2.91배가 增加 되었다. 열람좌석 數는 1955년의 4,194席이 現在 37,932席으로 9.04배가 增加되었으며 現在의 總奉仕對象者 數로 볼 때 열람좌석 1席을 5名이 利用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음은 藏書 數에 있어서 1955년에는 1,297,034冊이었던 것인데 現在의 總數는 4,693,353冊으로서 3.62배가 增加 되었다. 그러나 學生 1名에 約 24冊이 配當되는 셈이다. 끝으로 圖書館 建物에 있어서는 獨立된 建物을 使用하고 있으며 나머지 56%는 다른 建物에 附設 되어 있다. 그러므로 建坪 數를 볼 때 對象者 1名當 約 0.25坪이 配當되고 있는 實情이다.

特殊圖書館

우리 나라에서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圖書館 以外的 政府 各 機關의 圖書館 및 研究機關, 學會, 團體, 企業體, 言論機關, 軍關係의 圖書館과 病院, 矯導所, 盲人圖書館 等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特殊圖書館은 오늘 날 까지 그 機關의 職員이나 종업원의 趣味나 教養단을 위한 施設 程度로 생각 해 왔으며 또한 그 機關의 目的 達成에 직접 되지 않는 부수적인 시설로 取扱되어 왔다. 그러나 最近에 外서는 各種 企業體나 研究機關에서는 광범위한 研究分野와 科學技術의 發展에 따라 新制品의 開發 市場擴充 및 奉仕 等に 直接 關與시켜 새로운 情報를 迅速正確하게 獲得할 수 있는 手段으로서 “도큐멘테이션”의 概念까지 導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센터”로서의 圖書館에 對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充實한 施設을 갖추어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施設은 그 所屬機關의 性格이나 規模에 따라 設置되는 모양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 機關의 政策이나 運營 方針에 따라 資料의 構成은 勿論 活動 內容도 달라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여기에 特殊圖書館의 過去와 現在 狀態를 몇 가지 比較해 보기로 하겠다. 1955年 우리 나라 特殊圖書館의 數交는 15個館에 不過하였으나 現在는 111個館으로 增加되어 其間 7.4배가 增設되었다.

열람좌석수에 있어서는 526席이었던 것이 現在 2,772席으로 5.27배가 增加 되었으며 끝으로 藏書數는 187,372冊이 現在는 1,113,857冊으로서 5.94배가 增加되었다. 이러한 統計數字를 볼 때 特殊圖書館은 10餘年間 比약적인 發展을 해 왔다.

特殊圖書館으로서 지금 相當한 機能을 發揮하고 있는 圖書館은 ①韓國研究院 圖書館 ②國防大學院 圖書館 ③國立工業研究所 圖書館 ④中央教育研究院 圖書館 ⑤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圖書館 等인데 이들 圖書館은 特殊圖書館으로서 代表的이라 하겠다.

特殊圖書館에 關해서 特別 말씀 드릴 것이 두 가지가 있다. 其一은 코스틱(KORSTIC=Korea Scientific &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에 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韓國科學技術研究所에 關한 것이다.

KORSTIC은 1962년에 UNESCO 韓國委員會가 韓國政府의 協助를 얻어서 設立한 것이다. 設立 目的은 科學技術情報의 調査 蒐集 提供을 主目的으로 한 것인데 지금의 KORSTIC은 國內 唯一한 이 方面의 中樞 機關으로 되어 있다.

이 機關의 特色은 自然科學에 關한 雜誌를 많이 所藏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現在 1,000餘種의 自然科學에 關한 外國雜誌를 蒐集하여 이를 關係 研究所와

學者들에게 科學情報을 提供하고 있으며 이 方面에 關한 書誌整理作業도 하고 있다. 이 機關은 앞으로 自然科學의 綜合 乃至 專門圖書館으로서 發展시킬 것을 目標로 삼고 있다.

다음으로는 韓國科學技術研究所 圖書館에 關한 것이다. 이 圖書館은 1966年 韓美 兩 大統領의 合議에 依하여 韓美 兩國의 合同으로 設立된 것이다.

이 研究所는 1967년부터 圖書館 設立에 着手하였으며 司書를 美國에서 訓練시켜 採用하고 있고 美貨 50萬弗을 들여 現在 資料를 購買 中에 있다.

이 圖書館은 1969年 10월에 開館할 豫定이며 重要한 資料로서는 1,200 餘種의 外國 學術誌(이 中 400 餘種은 平均 10 乃至 15年의 Backfile 保有)와 30,000 餘卷의 圖書가 今年(1968)內로 備置된다고 한다.

이 곳에서는 또한 技術情報 分析作業도 하고 있으며 새로운 圖書館 奉仕活動이 기대된다. 이 施設은 또한 學界와 產業界 等의 外部人士에게도 公開될 것이다.

이 研究所의 圖書館은 KORSTIC 과 合同하여 우리나라의 唯一한 自然科學分野의 가장 現代의인 綜合圖書館이 될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끝으로 몇 마디 말씀 드릴 것은 越南에서 共產軍과 싸우는 軍人과 民間人을 爲하여 越南에 있는 韓國軍司令部와 部隊 그리고 休息處 168個所를 定해서 軍團 圖書室을 今年 1월부터 마련 했다는 事實이다. 每年 數拾萬弗을 들여 韓國語로 된 圖書와 雜誌를 越南에 보내게 되었는데 今年에 이미 14萬卷의 冊과 1萬種의 雜誌와 18,000點의 寫眞 等이 이미 越南의 168個 圖書室에 備置되고 있다.

이와 같은 圖書는 現地 軍人들의 教養, 精神的 慰安 國內外 消息의 提供 等 精神的 戰鬥力의 增加를 위하여 커다란 奉仕를 하고 있으며 많은 成果를 거두고 있다.

學校圖書館

우리 나라의 圖書館法이나 그 施行令에는 尤감스럽게도 學校圖書館의 施設에 關한 基準이 아직 制定되지 않았다. 다만 圖書館法 第25條 第1項에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圖書室 또는 圖書館을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同條 第2項에는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同法施行令에는 “法 第25條 第2項의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各級學校의 施設基準令에 依한다.” 라고만 規定되어 있을 뿐이다. 大學設置基準令같은 強力한 規定이 없었기 때문에 學校圖書館의 發展이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全體的으로 活潑치 못한 實情이다.

그러나 近東 地域의으로 볼 때에 學校圖書館 運動과 圖書館 地區協議會 活動 等이 相當히 發展된 곳도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地域社會에 있어서 첫째는 學校 圖書館을 擔當하고 있는 司書教師의 노력과 그리고 各級 學校長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의 認識 尺度에 基因한다고 생각한다.

過去에는 “조용한 자리”를 첫째의 條件으로 꼽았기 때문에 學校 本館에서 떨어진 閑寂한 곳에 곧 잘 圖書館을 세웠던 것이다. 只今은 이러한 孤立된 別館 圖書館을 過히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좀 더 具體的인 例를 들면 校舍가 3층建物인 때에는 2層에 그리고 2層建物인 때에는 1層에 圖書館을 設置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이러한 所謂 最大多數의 最大接近이라는 觀點만 보더라도 過去와 現在의 差異點이 놀랄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學校圖書館의 發展은 不遠問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韓國圖書館協會가 1962년부터 學校圖書館에 對한 統計를 내고 있는데 이 統計에 依하면 每年 눈부신 發展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學校圖書館, 閱覽座席數 그리고 藏書數에 對해 言及하기로 하겠다.

첫째로 學校圖書館을 볼 때 1962년에 149個館이 있었는데 現在는 3,322個館으로 7年間에 22.3倍가 增加되었으며 每年 平均 453個館이 增加되었든 것이다.

둘째로는 1962년의 열람좌석수를 볼 때 18,065席이었던 것이 現在는 17,242席으로서 9.76倍의 座席이 增加된 것이다.

끝으로 1962년의 장서 수를 보면 403,528冊이었는데 現在는 5,991,066冊으로서 其間 14.85倍가 增加되었으며 이는 年 平均 約 80萬冊이 增加된 셈이 된다.

마을文庫

마을文庫는 圖書館으로 認定하는 것은 아니나 農漁村을 위하여 많은 讀書活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紹介한다.

마을文庫는 農漁村의 住民을 위한 讀書施設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公共圖書館이 不足한 現實에 있어서 마을文庫는 農漁村 住民의 讀書習慣과 生活向上을 위하여 큰 役割을 하고 있다.

마을文庫의 普及은 現 마을文庫 副會長인 嚴大燮氏가 創案하여 1960年 以來 私財를 투입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克服하고 努力한 結果 1968年 12月末 現在 全國의 마을文庫 總數는 12,112個이고 全藏書 數는 766,657冊에 達하고 있다. 現在 政府에서는 이 事業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1969年度에는 9,500,000원의 國庫補助를 하고 있다.

그 道別 設置狀況은 다음과 같다.

서울 25, 釜山 74, 京畿道 2,259, 江原道 1,007, 忠

北 567, 忠南 1,145, 全北 707, 全南 1,460, 慶北 1,895, 慶南 2,786, 濟州道 197, 總合計 1,112個所이다.

專門職 養成 機關

우리 나라의 圖書館 專門職 養成을 위한 教育기관은 정규 대학교의 圖書館學科課程(大學院을 포함)과 特殊 教育課程 및 實務講習 등으로 區別 할 수 있다. 따라서 大學校에 圖書館學科가 設置된 때를 韓國에 現代的 圖書館學이 導入된 時期로 볼 수 있을 것이며 1956年 梨花女子大學校 文理科大學에 圖書館學 講座(副專攻으로)를 開講한 것이 最初의 일이라 하겠다.

그 후 1957年에 延世大學校에 美國 피바디 師範大學의 協助로서 圖書館學科를 大學校에 設置 開講함으로써 正規 大學課程이 시작된 以後 數個의 大學이 계속 해서 圖書館學科를 두게 되었다. 1961年 以後 延世大學校에서 9회에 239名 梨花女子大學校에서 7회에 353名, 中央大學校에서 3회에 70名, 成均館大學校에서 2회에 58名으로서 正規 大學課程을 마친 사람이 모두 720名이 된다.

그리고 圖書館學 碩士가 延大에서 7名, 梨大에서 12名이 輩出되었다.

特殊課程으로서는 一年課程으로 되어 있는 두 常設 教育機關, 即 延世大學校에 附屬된 韓國圖書館學堂과 成均館大學校 附設 韓國司書教育院인데 이 兩 機關에서 1957年 以後 韓國圖書館學堂(延大)이 188名, 韓國司書教育院(成大)이 128名의 修了生을 냈다.

司書教師의 養成을 위해서 延大, 梨大 그리고 韓國圖書館協會가 講習을 實施하여 1969年 現在 807名을 教育시켰다.

其外에 國立圖書館과 韓國圖書館協會에서 現職者를 위한 實務講習을 320時間 혹은 160時間을 實施하여 法律(圖書館法)에 의한 資格(正司書 및 準司書)을 取得케 하였는데 이는 1955년부터 1964년까지 660名을 教育시켰으므로 우리 나라에 正規 特殊 또는 其他 講習을 통하여 教育받은 司書(準司書 包含)가 總 2,931名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每年 4個 大學校에서 130餘名의 卒業生이 나오므로써 靑고 有能한 司書들을 館界에 輩出시키고 있는 것이다.

韓國圖書館協會

지난 4月16日은 韓國圖書館協會가 發足한지 滿 14年이 되는 날이었다.

終戰 後 館界의 有志 몇분이 圖書館協會 組織을 構想하고 8月30日 朴奉石氏를 委員長으로 하는 朝鮮圖書館協會가 結成되었다. 同年 10月1日에 國立圖書館에

看板을 걸고 會務를 시작하였으나 別로 具體的인 事業 推進을 하지 못하다가 1947年 4月21日 總會를 열고 會長, 專務理事, 理事(12名) 그리고 幹事를 選出하였다.

朝鮮圖書館協會가 初創期에 있어서 모든 圖書館의 體制를 우리것으로 改編하는 일과 圖書館 發展에 對한 多角的인 事業을 推進하였으나 다시 1950年 6.25動亂이 勃發하여 協會의 機能은 完全 麻痺狀態에 들어가고 말았다.

創立(1955年)

圖書館協會가 있었다함은 前述한바와 같으나 6.25動亂으로 因하여 協會 任員 中 拉致된 李在郁 會長, 朴奉石 專務理事를 비롯하여 大多數가 轉職, 退職 또는 行方不明이고 보니 서울 收復 後 協會를 朝鮮圖書館協會 이름으로는 總會를 召集할 수도 없게 되어 不得已 새로운 團體로서 韓國圖書館協會를 創立하게 되었다. 韓國圖書館協會의 創立은 1955年3月16日 서울시內의 各圖書館 代表者가 會合 懇談하여 名稱을 韓國圖書館協會로 改稱하고 同年 4月16日에 創立總會를 國立圖書館에서 開催함으로써 韓國圖書館協會가 創立을 보게 되었다.

問題點과 展望

오늘 날 우리 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 等 各分野에 걸쳐 急進的으로 發展되어 가고 있고 圖書館도 또한 이들 分野의 近代化와 併行하여 發展되어 가고 있다. 即 1963年 10月 28日자로 制定 公布된 圖書館法은 우리 나라 圖書館의 發展을 爲한 法的 制度를 마련하였고 또한 同年 11月 26日字에는 國會圖書館法을 制定公布하는 등 圖書館界의 새로운 轉換期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것은 國家나 國民이 다 같이 圖書館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認定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最近에는 圖書館이 해마다 增加되어 가고 있고 數個 大學에 圖書館學科가 新設되어 專門職 司書도 많이 輩出되어 가고 있으며 各 圖書館의 奉仕活動도 積極性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 말씀 드린 『韓國圖書館의 過去와 現在』에서 알 수 있듯이 各種 圖書館이 各己 제대로의 機能과 目的을 發揮하기에는 아직도 여러가지의 問題들이 많다.

即 圖書館의 職制 確立과 定員問題, 圖書館 豫算問題, 施設問題, 專門職 司書의 確保와 報酬問題 等 各種 圖書館의 共通的인 問題와 또한 制度的, 政治的 問題로서 大規模的인 現代 國立中央圖書館 制度의 確立, 公共圖書館의 市, 郡, 面 單位로 設置하는 問題,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을 마련하여 學校圖書館의 全般的인 設置와 司書教師의 增員 配置問題 等 重要하고 時急히

(19面 左段에 繼續)

郭再祐 字는 季綏, 玄風 사람으로 宣祖 때 사람. 名 臣錄, 芝峰類說 等の 책에 보인다.

5. 順道大師, 難陀大師, 阿道和尚, 朗智法師, 普德和尚, 慈藏法師, 良志法師, 元曉法師, 義相法師, 密本法師, 道義國師, 眞表律師, 眞鑒國師, 梵日國師, 哲鑒國師, 無染國師, 道憲國師, 洪陟國師, 普照國師, 慧覺尊者, 麟覺國師, 道誥國師, 無學妙嚴尊者, 懶翁禪師, 達空和尚, 無準禪師, 普愚, 混修, 覺空, 正心, 智嚴, 一禪, 靈觀, 休靜, 志常, 惟政, 洪堅, 彥機, 忠徽, 守初 等 東方의 著名한 佛家의 事蹟.

6. 우리 東人의 지은 歌曲 곧 歷代歌(陳復昌 作), 効善指路歌(曹南溟 作), 冤憤歌(忍齋 洪暹 作), 倪仰亭宋純 作), 關西別曲(岐峰 白光弘 作), 關東別曲(松江 鄭澈 作), 思美人曲(松江, 作) 續美人曲(松江 作), 將進酒(松江 作), 江村別曲(五山 車天輅 作), 怨婦辭(許筠의 妾 作), 流民歎(玄谷 趙韓偉 作), 牧童歌(休窩 任有後 作), 孟嘗君歌(無名 氏 作) 等 우리 東人의 지은 歌曲에 對한 評語.

7. 新羅 末葉부터 李朝까지의 名公 碩儒의 文集과 號, 別號 一覽表.

8. 우리 나라 俗談과 및 그것에 對한 解釋 等 다른 冊子에서는 얻어 볼 수 없는 것도 적지 않고, 高見과 卓說도 많음을 본다.

奎章閣本(現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所藏 寫本)을 調査하건대

每面 10 行, 每行 20 字, 總 87 丁, 30.4×20.6cm, 2 卷 1 冊에 지나지 못하는 小冊子지마는, 그 內容도 內容이거니와, 그 見解의 卓越性 等 에서 凡庸書와는 同日에 論할 수 없다. 더우기 印本이라고는 오직 1 本을 嶺南大學校에서 볼 뿐이지마는, 寫本은 國內 國外에 널리 流布되어 있어 本書가 名著임을 말해 주고 있다.

本書의 著者 洪萬宗은, 그 字는 于海고 號는 玄默子 本貫은 豐山, 벼슬은 僉知中樞에 이르렀다. 그 著書로는 이 旬五志 外에도

◇ ◇ ◇
(9面에서 繼續)

解決하여야 할 問題들이 많다.

이와 같은 問題들은 하루 아침에 解決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現在 圖書館界 人士는 勿論 關係 當局이나 國家에서 많은 關心과 努力을 傾注하고 있으므로 곧 解決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圖書館 運營 全般에 걸쳐 先進 諸國에 比하여 뒤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先進 諸國과 어깨를 같이 하여 國民文化 向上에 寄與할 밝은 展望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歷代總目……中國 太古 帝堯 元年에서 明 章宗에 이르기까지의 歷代 帝王의 帝都, 在位年數, 改元, 生詩及 陵墓 其他 顯著한 事蹟을 略述한 史書, 寫本.

詩話叢休……1652 年에 엮은, 4 卷 4 冊의 漢詩의 詩話集으로서 東方의 詩大家·名家로 <集>이 있어 世上에 돌아다니는 것은 모두 包括하여 남김이 없다.

小華詩評……高麗 及 李朝의 有名한 漢詩를 品評한 것으로서, 세상에 盛行되어 諳 文士에게 稱賞되었다. 1 卷 1 冊의 寫本.

菴葉志譜……閭里의 瑣語와 村野의 劇談 76 條를 모아 엮어 놓은 우리 나라 說話集으로서 1 卷 1 冊의 寫本 등이 있는데, 어느 거나 名著로 되어 있다는 건 그가 非凡한 學者임을 說明해 주고 있다.

또 그는 博學強記하고 그 때 名流인 金栢谷·鄭東溟 任休窩·洪晚洲 等を 師友로 삼았고. 젊어서 詩를 鄭東溟에게서 배울 적에 東溟이 자주 칭찬했고, 詩를 잘 하는 이로도 有名했던 것이다. 그는 仁祖 21年(1643 A. D.)에 나서 英祖元年(1725 A. D.)에 卒한, 이름난 詩人이요, 學者였던 것이다.

— <附 記> —

순오지에 대해서 汶波文庫(現 嶺南大 도서관 內) 도서관목록(62面)에 의하면, 「旬五志 洪萬宗 著, 2 卷 1 冊, 印本 25.3×17.5cm, 序 金得臣」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정말 <印本> 이라면, 想必 唯一 無二의 <印本 旬五志>라 하겠다. 그러나 筆者가 지난 5월 21일 친히 現地에 가서 조사한 바로는 (아직 그 文庫 所藏 圖書는 정리가 完了되지 못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 實物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 책 크기가 1959年 7월 20일 文林社 刊 油印本과 같았고 그 油印本 旬五志를 그 文庫 中에서 목격 했다. 이런 점으로 보아 前記 <印本> 이란 다른 아닌 文林社 刊 油印本 旬五志 그것이 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 1969. 5. 24. 筆者 追記 —

◇ ◇ ◇
(17面에서 繼續)

은 것이라 함은 실로 誤謬이다.』라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 글이 簡潔한것이 唐人의 글 같지 않다. 姚際恒·王謨의 말이 確實히 옳다. 다만 반드시 太公이나 寇謙의 作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著作時期를 戰國 末葉에 두고 繫辭·老子와 더불어 같은 時代로 보는 것이 옳다. 그 思想은 아마도 이 두 책과 가까운듯 하다.

(次號에 完)